The British Debate
- ep01 Is London overrated?

SPEAKERS Dalya, Eddie

00:04	**Eddie**	So, hello. Welcome to this new Britcent podcast, British Debate. I'm Eddie, and I'm here with Dalya today, and we're going to be discussing a topic, which is "Is London overrated?" But before we get into that, how are you today, Dalya? How's life?	안녕하세요. 브릿센트의 새로운 팟캐스트 <British Debat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디고, 오늘 달리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과대평가된 도시일까?"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달리아 선생님 안부를 물어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00:20	**Dalya**	I'm very good, thank you. A little bit...not stressed, preoccupied. I just got back from holiday, and now my family are coming, so I'm in, like, go-mode.	아주 잘 지냈어요. 감사해요.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기 보다는 신경 쓸 게 많았어요. 이제 막 휴가에서 돌아왔는데, 곧 가족들이 오거든요. 완전 풀가동 모드예요.
00:28	**Eddie**	Ah!	아!
00:29	**Dalya**	Bet you can relate to that.	선생님도 어떤 건지 아시죠.
00:30	**Eddie**	Oh yes. We call it the Monday blues, except it's a 'just-back-from-holiday blues'. Yeah.	그럼요. 보통 '월요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휴가병'이긴 하지만요.
00:36	**Dalya**	It's kind of bittersweet though, isn't it? Because you have the nice memories of holiday, but then you also have all of the other stuff to do.	즐거우면서도 괴롭지 않나요? 휴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지만,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잔뜩 있으니까요.
00:42	**Eddie**	Yeah.	그쵸.
00:43	**Dalya**	Like the cleaning and the unpacking and all that stuff.	청소도 하고, 짐도 풀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00:47	**Eddie**	Yeah, the endless laundry that seems to-- "I don't even remember wearing that when I was away, but I've got to wash all this stuff."	네. 빨래가 끝없이 나오잖아요. "휴가 동안 입은 기억도 없는데, 이걸 다 빨아야 하네" 싶어요.
00:53	**Dalya**	Yeah, absolutely. But yeah, it's exciting to be doing another podcast. We've got a longer one today. And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Britain, our home country. But how are you doing? How's life with you?	정말 그래요. 어쨌든, 새로운 팟캐스트를 하게 돼서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은 좀 더 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고향인 영국에 대해 얘기할 거라서요. 그나저나 선생님은 어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01:08	**Eddie**	Yeah, I'm okay. I'm not bad. So I've just dropped the little one off at school. So he's happy. He's now in Primary 4. So he's becoming a big boy.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방금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왔거든요. 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스코틀랜드 초등학교 4학년인데, 큰 소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01:16	**Dalya**	Wow!	우와!
01:17	**Eddie**	And I've got a bit of peace and quiet in the house because he's at school. So life is good.	아이가 학교에 있으니 집이 좀 평화롭고 조용해서, 요즘은 살 만하네요.
01:21	**Dalya**	So how old is-- how old are you in-- when you're in Year 4? I'm out of touch.	그럼 몇 살인 거죠? 4학년이면 몇 살인가요? 제가 감이 없어서요.
01:26	**Eddie**	He's going to be turning eight next month. So...some kids are eight, but [it's] interesting because of COVID, there's a lot of nine-year-olds now in his class because some parents held their children back a year.	다음 달이면 여덟 살이 돼요. 어떤 아이들은 여덟 살인데, 재밌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반에 아홉 살인 아이도 꽤 많아요. 부모가 애들을 1년 늦춰서 학교에 보냈거든요.
01:39	**Dalya**	Really?	정말요?
01:40	**Eddie**	Because of being in isolation during COVID and stuff like that; they didn't feel they were quite ready to go straight into primary. I don't know if that happened in other parts of the UK, but it happened in Scotland. So there's a bigger range of age groups in each year at the moment as a side effect of COVID and the pandemic and quarantine.	코로나 때 격리 생활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가 애들이 바로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랬어요. 코로나19와 팬데믹, 자가격리의 여파로 한 학년에 있는 나이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01:59	**Dalya**	They're making the kids retake the year?	애들이 그 학년을 또 다니게 한 건가요?
02:01	**Eddie**	Yeah, or they just instead of going into Primary 1 when they were four or five, the parents held off and put them in when they	네. 아니면 4~5살 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대신에 5~6살까지 기다렸다가 입학시키기도 했어요.

		were five or six.	
02:09	**Dalya**	Wow, I wonder if that makes a difference to the dynamic in the classroom.	와, 그럼 학급 분위기나 이런 것도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02:12	**Eddie**	Yeah, it'd be interesting; interesting to find out.	네. 그걸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02:15	**Dalya**	Wow. Well, should we move on to our topic for today?	우와.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02:19	**Eddie**	Sure. So, is London overrated? And I guess the first question is really: Have either of us ever actually lived in London?	그럼요. 질문은 "런던은 과대평가된 도시일까요?"인데요.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둘 중 실제로 런던에 살아본 사람이 있나는 거예요.
02:27	**Dalya**	Well, I have a...I probably mentioned this on previous podcasts, but I have an interesting relationship with London because I grew up next to London, very close to London. Spent most of my teenage years and adult life going there on the weekends. Still now, I go there a lot to see my friends and stuff. But I have only actually lived there for about six months, actually, when I first started working for Britcent. So I can't-- my opinion on London is a bit kind of skewed because I've never actually been a proper Londoner.	음...아마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런던과 좀 재미있는 관계예요. 제가 어릴 때 런던 바로 옆, 런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십 대 시절과 성인이 된 후에도 주말이면 런던에 가곤 했죠. 지금도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러 자주 가요. 하지만 실제로 런던에 살았던 건 브릿센트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6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런던에 대한 제 의견이 다소 편향되었을 것 같네요. 진짜 런던 사람이었던 적은 없으니까요.
02:58	**Eddie**	Londoner. "Guv'nor. All right, guv'nor?"	런던 사람이면 "어이 친구, 잘 지내쇼?" 같은 거죠?
03:00	**Dalya**	Yeah.	맞아요.
03:01	**Eddie**	Yeah.	네.
03:01	**Dalya**	Have you ever lived in London?	선생님은 런던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03:02	**Eddie**	No. I've worked there. I worked for Imperial College London, but even when I was working there, I only had to go down like two or three times a year. But my wife lived there. She lived there for about two and a half years while I was working in China. My wife had a good job in London, and she lived in Greenwich.	아뇨. 일한 적은 있어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일했었는데, 일 년에 두세 번만 가면 됐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런던에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일하던 때에 2년 반 정도 런던에 살았거든요. 런던에서 괜찮은 직장에 다녔고, 그리니치에 살았어요.
03:22	**Dalya**	Oh, that's-- I [indistinct] live there as well.	아... 저도 거기에 살았어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03:24	**Eddie**	Ah, right, cool.	그래요? 멋지네요.
03:25	**Dalya**	Yeah.	네.
03:25	**Eddie**	So I was asking her last night. You know, what was her answer to this question? And she said she loved Greenwich. She'd lived in other parts of London, but that was like-- she thought it [Greenwich] was great because you had all this green space, which is unusual for a big city. And I remember visiting her there and thinking, "Oh, that's so cool! It's like this is where time begins" because it's, you know, Greenwich Mean Time, the observatory and stuff. Yeah.	그래서 어젯밤에 아내에게 물어봤죠.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아내는 그리니치가 정말 좋았대요.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도 살아봤는데, 그리니치는 대도시에 흔치 않은 녹지가 많아서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와 정말 멋지다! 여기가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잖아"라고요. 알다시피 그리니치 평균시(GMT)도 있고, 천문대도 있잖아요.
03:48	**Dalya**	Wow. Well, I would have to say that, previously, if you had asked me this 10 years ago, "Is London overrated?", I would have said yes, because the truth is that, because as I said, I grew up kind of next to...you know, very close to London, it was always a big part of our lives, and a lot of people that I studied with and I went to school with, most of them, I'd say, actually most of them, there was this natural migration to London. Everybody ended up working in London. And, to be honest, I just associated London with being extremely expensive and overpriced, stressful. Because we were very young back then, it was even more expensive because, you know, we were just starting out. So I never understood why. Like, when I spoke to my students and they love going to London, I wanted to be like, "Why? It's so massive." And, you know, I heard a lot of stories of, you know, as I said, a lot of us when we were young, they went to move there, and people felt quite lonely in this big city. It's very grey. The weather's terrible. So I never understood why people wanted to live in London. And then, for some reason, in the last few years, as I've been going back, you know, just to have fun, I realised how amazing London is. Is it still overpriced? Yes, absolutely.	와. 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마 10년 전에 런던이 과대평가된 도시냐고 물었다면 그렇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런던 바로 옆...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런던은 항상 삶의 큰 부분이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학교에 다녔던 많은 이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런던으로 이주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다들 결국 런던에서 일하게 됐죠. 솔직히 저는 런던을 엄청 비싸고, 물가도 높고, 스트레스도 많은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주 어릴 때니까 모든 게 더 비싸게 느껴졌었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됐어요. 학생들과 얘기하다가 런던에 가는 길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 "왜? 너무 크잖아"라고 생각했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말했다시피 많은 친구들이 어릴 때 런던으로 넘어갔는데,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가 회색빛이고, 날씨도 안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런던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무슨 이유에선가 런던에 그냥 놀러 가면서 런던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전히 비싸냐고요? 네. 물론이죠. 여전히 스트레스받는 곳이냐고요? 그럼요. 그래도 런던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도시를 더 많이 가봤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런던에는 분위기가 아주 다른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주 다문화적이기도 하고요. 진짜로 다문화적이죠. 누군가는 어떤 곳에 중국 음식점 하나만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Is it still stressful? Yes, but I didn't quite realise quite how amazing it is. Maybe it's because I've been to more other cities, and I realised that London really does have so many different areas that are re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t's really multicultural, like, genuinely multicultural. You know, some people, some places, they have a Chinese restaurant and they call themselves multicultural. So I would have to say it's not overrated, but some of the things in it get a little bit...what's the word? Like some people get obsessed about something that's not that special because they think it's-- like, they go to a pub and they're like, "This is amazing!" And I'm like, "There are better pubs." So yeah, I would say it's not overrated, but it is overpriced.	있어도 다문화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런던이 과대평가된 도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만 그 안의 어떤 것들은 약간...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것에 과하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술집에 가서 "여기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더 나은 술집도 많은걸" 싶거든요. 어쨌든, 저는 런던이 과대평가된 도시는 아니지만 물가가 비싼 도시라고 말할게요.
05:46	**Eddie**	But that's still interesting, though, because you're maybe looking at it through rose-tinted spectacles, like--	어쨌든 재밌네요. 어쩌면 선생님은 장밋빛 안경을 쓰고 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05:53	**Dalya**	Possibly.	그럴 수도 있죠.
05:54	**Eddie**	--the what you might call the honeymoon period, because you've never had to 'live live' there and survive there. But I agree with what you say about it. All these different areas that have unique character and being truly multicultural. I think London is almost like a map of the UK in miniature.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런던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버텨야 했던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한 말에 저도 동의해요. 여러 지역이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고, 정말 다문화적이라는 점 말이에요. 저는 런던이 거의 영국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06:13	**Dalya**	Microcosm.	축소판(microcosm)이요.
06:13	**Eddie**	Yeah, exactly. That's a good word, microcosm. That's a good word.	맞아요. 'Microcosm'이 좋은 단어네요.
06:17	**Dalya**	Yeah.	네.
06:17	**Eddie**	You've got these little pieces that... "Oh yeah, that's like a little touch of this part of the UK or that part of the UK." But what it doesn't have, in my opinion, because I'm from Scotland and...	마치 작은 조각들 모음 같잖아요. "아, 여긴 영국의 이 지역을 떼어다 놓은 것 같고, 저긴 또 영국의 그 지역 같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제 생각에 런던에 없는 게 있다면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06:28	**Dalya**	Here we go!	이제 나오네요.
06:29	**Eddie**	...similar to Irish people, Welsh people: the mountains, the hills, even Northern England, the Lake District, you know. But I guess it comes down to: Are you a city person, or are you more of an outdoors nature person?	아일랜드 사람이나 웨일스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텐데요. 바로 산이나 언덕 같은 것들이에요. 잉글랜드 북부에도 레이크 디스트릭트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건 내가 도시 사람인지 야외 활동이나 자연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06:44	**Dalya**	Well, I-- yeah, I was about to say that, that you know we can't have our cake and eat it too, right? We can't have both mountains and a capital city. However--	음,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요. 산과 수도를 둘 다 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06:52	**Eddie**	However, Seoul.	서울이 있죠.
06:53	**Dalya**	Seoul. Exactly. Always amazes me. Like, can you imagine being in the city centre and looking out of your window and seeing-- Like, my students say to me, "Oh, I'm in the mountains." And I'm like, "Hold on, I thought you lived in Seoul." And they say, "I do."	서울이요. 맞아요. 항상 놀라워요. 도심 한가운데서 창밖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저에게 이러거든요. "지금 산에 있어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난 네가 서울에 사는 줄 알았는데"라고 하면 맞다고 하더라고요.
07:06	**Eddie**	I would love that.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7:07	**Dalya**	Sometimes I wonder whether it's the equivalent of the parks in London. Like, you know, people, as you mentioned, one of the reasons people really love London - and rightly so - is because of the parks. And I think that's one-- I think one of the reasons I realised later that London is great is because basically I think I took it for granted because I spent so much time there. But do you think the mountains are like the equivalent? Like it's the same kind of novelty?	가끔은 서울의 산이 런던의 공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사람들이 런던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원이잖아요. 그럴 만하기도 하고요. 제가 런던이 정말 좋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은 이유 중 하나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런던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도 산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산도 그것과 비슷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걸까요?
07:35	**Eddie**	Possibly. I don't know. We really need to get a Korean colleague into this podcast and kind of ask them about it, you know? But possibly. But talking about the parks, I think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London is the connection to history. Because if you look at Hyde Park, you can walk through Hyde Park and you can imagine people 200 years ago walking through the same park with their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이건 정말 한국인 동료 한 명을 초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 수도 있죠. 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런던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하이드 파크를 보면, 200년 전 사람들이 양산을 들고 바로 그 공원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마차도 지나가고요. 런던의 특정 지역에서는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parasols, and then the horse and carriage going by, and I think that's a wonderful feeling, that connection to history in the past that you get in certain parts of London.	
08:13	**Dalya**	That's true. Yeah, you could say it's steeped in history.	맞는 말이에요. 유서 깊다 할 수 있어요.
08:16	**Eddie**	Mm. Yep, steeped in history.	맞아요. 역사가 깊이 배어 있죠.
08:18	**Dalya**	That's another thing, I think. I think maybe talking to my students had made me realise how much I took London for granted because a lot of Koreans say that obviously they love Seoul, but there aren't that many old buildings there for various reasons,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they love London is because of all these old buildings. And then I was like, "Yeah, I didn't realise what a great thing that is."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어요. 저는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런던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많은 한국인이 당연히 서울을 정말 좋아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이래요. 그걸 듣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몰랐네" 싶더라고요.
08:39	**Eddie**	But of course, you can get those older buildings and that same sense [with] a lot more value for money because, as you say, London's overpriced. And I think I'm probably going to agree with you there. Maybe it's not overrated [but] maybe it is overpriced. But you can get those same buildings, that same sense of history: Oxford, Cambridge, York, Bath. And, of course, being patriotic, we've got Edinburgh and Glasgow, even. But my favourite city is Stirling. But Stirling's not a city; it's a town. It's just called a city because they got given that status at some point. But if you showed Stirling to a Korean and said this is a city, I think they would just be laughing.	그런데 물론 그런 오래된 건물과 똑같은 분위기를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선생님 말처럼 런던은 너무 비싸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과대평가된 도시는 아닐 수 있지만, 비싸긴 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오래된 건물이나 역사적인 분위기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요크, 바스 같은 곳에도 있죠. 물론 애국심을 조금 보태자면 스코틀랜드에도 에든버러와 글래스고가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스털링이에요. 사실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긴 한데요. 어느 시점에 도시라는 지위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한국인에게 스털링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도시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웃어버릴 것 같아요.
09:23	**Dalya**	Isn't the technical definition, technically in the UK it's a city if it has a cathedral?	엄밀히 따지자면 영국에서는 대성당이 있으면 도시라고 하지 않나요?
09:28	**Eddie**	Yes, but that's the weird thing about Stirling; it doesn't have one.	네. 하지만 스털링이 특이한 게 있다면, 바로 성당이 없다는 거예요.
09:31	**Dalya**	Ooh, controversial.	오,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09:32	**Eddie**	I don't know how it got that status. I think	어떻게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somebody knew the right people probably.	누군가 연줄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09:38	**Dalya**	I was going to say maybe some palms were greased.	저도 혹시 뒷돈이 오갔을 수도 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09:40	**Eddie**	Yeah, palms were greased. Little under-the-table deals going on.	네. 뒷돈이 오갔을 수도 있어요. 비밀 거래 같은 게 있었을 수도요.
09:43	**Dalya**	Yeah, interesting. So, have you-- You haven't lived in London, but do you have any desire to live in London? Because, as I said, I grew up with this kind of almost like this mentality where it's almost natural; everybody goes to London. But then, interestingly, now everybody's left. Because they're having children, they've all flocked to the suburbs.	흥미롭네요. 그럼 선생님은 런던에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런던에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다들 런던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은 다들 런던을 떠났거든요.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다들 교외로 옮겨가더라고요.
10:04	**Eddie**	Yeah. It's funny that isn't it, in life? Because you used the word 'migration' earlier, so the birds are all migrating to London. Then they flock away to, you know, build their nests and things. But then once their little birds take flight, maybe they'll all migrate back to London and get back to the city. Yeah.	네. 인생이라는 게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이 아까 '이주'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새들이 다 런던으로 이주해 갔던 겨죠. 그러다가 둥지를 틀고 그러기 위해 다시 런던 밖으로 이동했고요. 그런데 새끼 새들이 날 수 있게 되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도시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10:21	**Dalya**	Oh, that's true, yeah; maybe when they retire.	아, 그러네요. 은퇴하고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10:23	**Eddie**	But for me, the big, big issue with London that's often overlooked, and it might not be that important to Korean listeners, is the air pollution. It's a big issue. It's the most polluted city in the UK, I think, for air pollution with its six airports. I mean, you've got planes constantly...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인데, 제가 느끼는 런던의 정말 큰 문제는, 한국 청취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대기오염이에요. 꽤 큰 문제거든요. 런던은 영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예요. 근처에 공항이 여섯 개나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계속...
10:43	**Dalya**	Six?	여섯 개요?
10:44	**Eddie**	Six. There's six airports around London.	네. 런던 주변에 공항이 여섯 개나 있어요.
10:46	**Dalya**	But then, but Stansted and Heath-- they're not actually in London, are they?	하지만 스탠스테드랑 히드로... 이건 실제로 런던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10:49	**Eddie**	Well, it depends. That's a debate. That could be another debate. You know, are these technically part of London? But they're usually	음,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토론 거리겠네요. 엄밀히 말해서 런던의 일부인가? 하는 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속한다고 얘기하긴 하죠.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referred to as being, you know...	
10:59	**Dalya**	Because my-- I've got family in Luton, and that says 'London Luton', but Luton is not--	왜냐하면 제 가족이 루턴에 사는데, 거기도 '런던 루턴 공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루턴은...
11:05	**Eddie**	It's not London.	런던이 아니죠.
11:05	**Dalya**	--London.	런던이 아니에요.
11:06	**Eddie**	But it's as if London's kind of taken them over for the glory of having airports, so...	마치 런던이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는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 뺏어간 것처럼 느껴지네요.
11:13	**Dalya**	Interestingly, in Luton, because of the pollution from the planes, just as a side note, beautiful sunsets.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루턴은 비행기로 인한 오염 때문에 노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11:19	**Eddie**	It's amazing that, isn't it?	신기하지 않나요?
11:21	**Dalya**	Yeah.	네.
11:22	**Eddie**	My father was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제 아버지가 전문 사진작가였거든요.
11:24	**Dalya**	Wow.	우와.
11:24	**Eddie**	And he specialised in aerial photography. And he flew over a motorway once. Took a-- Said, "That's wonderful. This beautiful orange glow that you get." And his friend who did kind of environmental science said, "Yeah, it looks beautiful, but actually, that's the pollution that causes that effect."	특히 항공 사진을 전문으로 하셨어요. 한 번은 고속도로 위를 비행한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황빛이 생기다니"라고 했대요. 그런데 환경과학 쪽 일을 하던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말하셨대요. "응, 정말 아름답지. 그런데 사실 대기오염이 이런 효과를 만드는 거야"라고요.
11:45	**Dalya**	Yeah.	그렇군요.
11:45	**Eddie**	Yeah.	네.
11:46	**Dalya**	So you have no desire to live in London?	그럼 선생님은 런던에 살고 싶지는 않은 건가요?
11:47	**Eddie**	No. Number one, I've got chronic asthma, so...	네. 첫 번째로, 제가 만성 천식이 있거든요.
11:52	**Dalya**	Oh god.	저런.
11:52	**Eddie**	...you know, living somewhere like that would not be a good idea. Number two, I'm not really a city kind of character. I lived in a couple of big cities in Asia. And it was nice, but I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도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시아의 대도시 두어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좋긴 했는데, 그래도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thought, "No, no, I'm--" I think it's because I grew up in a small town, and even the closest city, Glasgow, was a small city. But I think London's good to visit. So I think overrated to live in and work in, yes. Overrated to visit, no, because of all these iconic things you get there, you know, like Big Ben and Tower Bridge and things like that, the Greenwich Observatory. And because I'm a Sherlock Holmes fan, the fact that you can go to Baker Street, you know, and imagine if Sherlock Holmes had been real and things, I think that's pretty fantastic.	저한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가장 가까운 도시인 글래스고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런던이 방문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런던이 살거나 일하기에는 과대평가된 곳인 것 같지만, 방문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빅벤이나 타워 브리지 같은 상징적인 장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니치 천문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셜록 홈즈의 팬인데요. 베이커 스트리트에 가서 셜록 홈즈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12:41	**Dalya**	Yeah, I know what you mean. But a lot of people, they live really quite...not even in the suburbs, but in, you know, Zone 5 or whatever. And I have to admit, it doesn't really feel like the city. Like when I lived there, I just lived where there was a house available, but it was quite far out. But it was really nice. I mean, to be fair, it was-- The downside was that I spent most of my life on a train going into the centre. But when I was there, it was quite nice. It was very leafy. It didn't really feel like-- it felt very different from the centre, if you know what I mean.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교외가 아니더라도, 5존 같은 외곽에 살잖아요. 이건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기기는 별로 도시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런던에 살 때도 그냥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살았는데, 꽤 외곽이었어요. 그래도 아주 좋았죠. 굳이 단점을 꼽자면 제 삶의 상당 부분을 도심으로 나가는 기차 안에서 보냈다는 건데요. 그래도 그곳에 있을 땐 꽤 좋았어요. 녹음이 우거진 곳이었고, 딱히... 도심과는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13:15	**Eddie**	Yeah, yeah. A lot of the UK dramas you get that are set in London, you know, one minute they're in the city centre, and then, as you say, next minute they've been on a train for 30 minutes, and then suddenly, wow, it looks like a little town somewhere. But it's not; it's actually attached to the city. It's nice.	네. 영국 드라마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데, 한 장면에서는 런던 중심부에 있다가, 선생님 말처럼 다른 장면에서는 30분 정도만 기차를 타고 넘어가면 갑자기 작은 마을 같은 곳이 등장해요. 사실 마을이 아니라 런던에 붙어 있는 지역인 거죠. 그런 곳도 좋아요.
13:33	**Dalya**	Yeah. So I think there are quite a few places to live in London, and that makes a huge difference as well. Like, where you live. Like, living in the centre, I think would be awful.	네. 제 생각엔 런던에도 살 만한 곳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사는지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런던 도심에 사는 건 저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13:33	**Eddie**	So why awful? You know, why do you think the centre would be awful compared to the suburbs?	왜 싫을 것 같나요? 교외보다 도심에 사는 게 왜 별로일 것 같아요?

13:48	**Dalya**	Well, I think maybe that's not unique to London, but [it's] just a bit soulless. I know it's a bit of a cliche but, you know, not really any personality. Really expensive. There's more-- There are more kind of businesses around. It's not very residential. I don't mean 'suburbs suburbs'; I don't mean like the actual suburbs.	음, 런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삭막한 것 같아요. 틀에 박힌 생각일 수도 있지만, 딱히 개성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상업시설이 더 많기도 하고, 주거지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교외스러운 진짜 교외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14:08	**Eddie**	Yeah, I know what you mean. Yeah, yeah.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4:09	**Dalya**	Yeah.	네.
14:10	**Eddie**	The more residential areas of the city.	도시 내 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들 말이죠.
14:12	**Dalya**	Yeah. And I suppose because when you go to those places, that's when you feel a sense of community. I think that's what people-- That's what people really want, isn't it? That's often why they feel, as I said, lonely in cities.	네. 그런 곳에 가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나 봐요.
14:29	**Eddie**	Yeah, I mean, a good word there is 'isolated'. You know, there's this kind of sense of isolation in this city, even though you're surrounded by 200,000 people, you still feel this isolation.	네. 여기에 'isolated(고립된)'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어떤 고립감이 느껴지거든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고립된 느낌이 들어요.
14:39	**Dalya**	Absolutely. I remember a friend who lived there when she was in her early 20s, just starting out. She used the word 'anonymous', which I thought was really interesting.	맞는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20대 초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런던에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요. 'anonymous(익명의 존재 같은)'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14:47	**Eddie**	Yes.	네.
14:48	**Dalya**	She felt anonymous. But then again, what's interesting is that, and this is a big statement to make, but I have found that when I've been into London and talked to people who've moved there; as I said, most people move for work, and I'm from the actual suburbs of London. Like, around London. And a lot of people move into London, and I find that talking to them isn't fun because they complain about the house prices and the commute. Obviously, I'm being a bit, you know, flippant on purpose, being a bit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익명의 존재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꽤 강한 주장이긴 한데요. 런던에 가서 런던으로 이사 온 사람들과 말해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일 때문에 런던에 오거든요. 저는 런던의 진짜 교외 지역, 런던 인근 지역 출신이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이 런던으로 이사를 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재미없더라고요. 집값이나 출퇴근에 대해 불평만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일부러 가볍게 과장해서 말하는 거긴 한데요. 농담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런던에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런던사람들과 함께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dramatic. I'm joking, obviously because, you know it is crazy. Like, living in London is just almost impossible, so I understand. But what is fun is when you're in London with Londoners. It's so fun to be in London with Londoners. Have you ever experienced that? They don't complain about stuff. They know the Tube system as if they were-- it's like written in their...	런던에 있을 때예요. 런던사람들과 런던을 돌아다니는 건 재밌거든요. 선생님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들은 별로 불평을 안 해요. 런던의 지하철 시스템도...
15:46	**Eddie**	Yeah, it's like the back of their hand. Yeah, like they know it like the back of their hand. They can [say], "Oh, take this one and then this one and change here." And you're like,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It's incredible.	속속들이 알고 있죠. 환히 꿰뚫고 있어요. "이걸 타고, 저걸 타고, 여기서 갈아탸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15:56	**Dalya**	Yeah, and they just move through the Tube system as if, like, without even looking at the signs, just like as if they're just-- So, yeah, I do find that being in London with Londoners - people who are from there - is really, really fun.	네. 그리고 표지판을 보지도 않고 지하철을 쭉쭉 돌아다니잖아요. 마치 그냥... 아무튼 저는 런던 사람, 런던 출신 사람들과 런던에서 함께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16:08	**Eddie**	True. Yeah, I had a couple of colleagues at Imperial who were London Londoners, born and bred, you know. And, "Oh, let's go to this little cafe." And cutting down these little side streets I would never have found and [the places] are nice and more reasonably priced as well. And then okay, we need to get across here for this meeting. "Okay, let's go here. One, two--" And they were zigzagging across the city and pointing out all these things I didn't even know existed in London. So yeah, if you can get a real Londoner with you in London, fantastic.	맞아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일할 때 몇 명이 런던에서 나고 자란 진짜 런던 토박이였는데요. "이 작은 카페에 가보자"라고 하더니, 제가 평생 찾지도 못했을 것 같은 작은 골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카페는 멋지고 가격도 더 합리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를 건너서 회의 장소로 가야 한다고 하더니, "이쪽으로 가자. 하나, 둘..." 하면서 도시를 지그재그로 가로질러 가는데, 저는 런던에 있는지도 몰랐던 곳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런던에서는 진짜 런던 출신 사람과 있으면 정말 좋긴 해요.
16:38	**Dalya**	Yeah, it's really nice. And they know everything about every area.	네. 정말 좋아요. 어디를 가든 전부 다 알고 있기도 하고요.
16:42	**Eddie**	Yeah, yeah.	맞아요.
16:43	**Dalya**	Yeah.	네.
16:44	**Eddie**	If the listeners are interested, have you seen	만약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this guy on YouTube, Jools? J-O-O-L-S, and it's Jools' Walking Guides of London. And it's good. If you want to learn about London and you want a bit of extra listening practice, it's interesting, interesting to listen to. And he goes through the history. You know, "This is a bit where Jack the Ripper was" or "This is a bit where some other historical event happened" because he's a real Londoner as well.	Jools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펠링이 'Jools'이고, 'Jools' Walking Guides of London'이라는 채널이에요. 꽤 괜찮거든요. 런던에 대해 배우고 영어 듣기 연습도 더 하고 싶다면, 꽤 흥미롭게 들어볼 만한 채널이랍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가 잭 더 리퍼가 있었던 곳이에요"라든가 "이곳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라고 말이죠. 이 사람도 진짜 런던 토박이거든요.
17:12	**Dalya**	Okay, so he has the knowledge. Speaking of 'the knowledge', do you know what I mean when I say The Knowledge, capital T, capital K?	그렇군요. 그럼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겠네요. '지식'하니까 말인데, 혹시 T와 K를 대문자로 쓴 'The Knowledge'라는 게 뭔지 아나요?
17:19	**Eddie**	I do, I do. I watched a documentary about that years ago, and the question is: Will AI ever make that obsolete? You know, that test for these taxi drivers, these cabbies, who have to do The Knowledge. It's equivalent to like the Korean university entrance exams. It's that intense, you know? The amount of knowledge you have to have. So maybe you can explain, Dalya, for listeners what exactly that is.	당연히 알죠. 몇 년 전에 그것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는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AI 때문에 언젠가 이게 쓸모없어질까요?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통과해야 하는 Knowledge라는 시험 말이에요. 한국의 수능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강도가 높거든요. 알아야 하는 지식의 양이 엄청나요. 선생님이 그게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나요?
17:46	**Dalya**	Well, I hope I have understood correctly. It's a test for-- is it for all taxi drivers or black cab drivers? And they--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이건 어떤 시험인데... 모든 택시기사가 대상인가요? 아니면 블랙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하나요?
17:53	**Eddie**	Black cab ones, I think. Yeah.	블랙 택시 기사가 대상일 거예요.
17:54	**Dalya**	They basically are tested on London locations, and they have to know, basically, where everything is. I think down to the street, right?	기본적으로 런던의 지리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아마 뭐가 어디 있는지 전부 알아야 할 거예요. 거리 이름까지 외워야 하는 거죠?
18:01	**Eddie**	That's right. Yeah, all the way down to the street. And that's thousands and thousands of streets and combinations and routes that they would get tested on.	맞아요. 거리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야 해요. 엄청나게 많은 거리와 다양한 조합, 경로에 대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18:10	**Dalya**	Well. Well, GPS as well. I mean, I'm sure a lot of kids now jump in Ubers with GPSs, and they're like, "What's a black cab? What's The Knowledge?"	음. GPS도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냥 GPS가 달린 우버 택시를 불러 타고는 이럴 거예요. "블랙 택시가 뭐예요? The Knowledge는 뭐죠?"라고요.
18:17	**Eddie**	Oh yeah, yeah, exactly, exactly. But times	아, 맞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니까요.

		change.	
18:21	**Dalya**	I just use the word 'kids'. I'm so old.	제가 방금 '애들'이라고 했네요. 저 진짜 늙었나 봐요.
18:23	**Eddie**	Oh, trust me, you're a young whippersnapper compared to me.	에이, 저에 비하면 선생님은 그냥 풋내기죠.
18:24	**Dalya**	Young whippersnapper.	풋내기라니.
18:30	**Eddie**	That's why this is good. You can't see all my balding hair, you know, because it's just audio-only.	그래서 이게 좋아요. 오디오로만 진행하는 팟캐스트라 숱이 빠져가는 제 머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18:36	**Dalya**	So, do we have a conclusion? Are we...?	그럼 우리 결론은 있는 건가요?
18:38	**Eddie**	I think you seem to be saying it's definitely not overrated, but it is a bit overpriced. I'm still going to go with overrated for living in because there are lots of other choices in the UK, but not overrated to visit. I think it's a fabulous place to visit.	선생님은 과대평가된 곳은 확실히 아니지만 조금 비싸다고 말하려는 것 같네요. 전 여전히 살기에는 과대평가된 곳이라고 할게요. 영국에 다른 선택지도 많거든요. 하지만 여행지로는 과대평가되지 않았어요. 놀러 가기엔 정말 멋진 곳이라고 생각해요.
18:55	**Dalya**	Yeah, I think maybe I also agree with 'to live' because it's just too expensive. Yeah. Well...	네. 저도 '살기에는'이라는 부분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비싸니까요.
19:03	**Eddie**	I think that's us.	우리 같은 생각이네요.
19:03	**Dalya**	That's all we have time for.	오늘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19:04	**Eddie**	Yeah, it's all we've got time for. So, obviously, for those listening, please remember to join our Britcent membership if you want the English-Korean transcripts of this with some of the key expressions that Dalya and I have used. And I guess we'll hear from each other next time.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 영-한 스크립트와 달리아 선생님과 제가 사용한 주요 표현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브릿센트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19:21	**Dalya**	Yeah. And it has a Korean translation as well. There are more details in the description box.	네. 한국어 번역도 함께 있거든요. 더보기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26	**Eddie**	Superb, superb.	아주 좋네요.
19:28	**Dalya**	Yeah. Well, take care until I see you next.	네.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19:31	**Eddie**	Same to you, and good luck with all that post-holiday laundry.	선생님도요. 휴가 후 밀린 빨래도 잘 해치우시길 바랄게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19:35	**Dalya**	Ah, thank you.	아, 감사해요.
19:36	**Eddie**	Bye for now.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37	**Dalya**	See you later. Bye-bye.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Key Expressions

Vocab	Definition & Sentences	
preoccupied	**Quote [0:20]**	*A little bit... not stressed,* ***preoccupied****.*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기 보다는 신경 쓸 게 많았어요.*
	Definition	*(adjective) absorbed in thought or worry; having your mind so taken up by something that you can't focus on anything else.* *(형용사) 생각·걱정에 사로잡힌, 머릿속이 복잡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자주 쓰는 형태: be preoccupied with something = ~에 정신이 팔려 있다, ~로 머리가 복잡하다*
go-mode	**Quote [0:23]**	*Now my family are coming, so I'm in, like,* ***go-mode****.* *곧 가족들이 오거든요. 완전 풀가동 모드예요.*
	Definition	*(informal, coined on the spot) a state of being fully active and busy, constantly doing things without pause.* *풀가동 상태,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드 (비격식)* **사전에 등재된 표현은 아니고 "명사 + mode"를 붙여 만드는 패턴이에요 (예: panic mode 패닉 상태, survival mode 생존 모드, beast mode 전력 질주 모드).* **비슷한 표준 표현: in full swing (한창 돌아가는), on the go (쉴 새 없이 움직이는), flat out (전력으로)*
bet	**Quote [0:29]**	***Bet*** *you can relate to that.* *선생님도 어떤 건지 아시죠.*
	Definition	*(informal) 'I'm sure' or 'I'd guess' — used to express a confident assumption about what someone else thinks or feels. Full form: 'I bet (that)...'* *분명 ~일 거예요, ~하시죠?, 틀림없이 ~할걸요 (확신에 찬 추측을 나타내는 비격식 표현) *"I bet"의 I를 생략한 회화식 표현*
out of touch (with something)	**Quote [1:21]**	*How old are you when you're in Year 4? I'm* ***out of touch****.* *4학년이면 몇 살인가요? 제가 감이 없어서요.*
	Definition	*no longer familiar with or informed about something* *(어떤 분야·현실에 대해) 감이 없는, 소식에 어두운, 잘 모르는, 현실과 동떨어진* **반대말: in touch (with something) = ~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감을 유지하는* **사람 관계에 쓰면 뜻이 달라져요: lose touch with someone = ~와 연락이 끊기다*
hold off (on something)	**Quote [2:01]**	*Instead of going into Primary 1 when they were four or five, the parents* ***held off*** *and put them in when they were five or six.* *4~5살 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대신에 5~6살까지 기다렸다가 입학시키기도 했어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Definition	*to delay doing something; to wait before taking action, usually deliberately. (~하는 것을) 미루다, 보류하다, 잠시 기다리다 (의도적으로 시기를 늦추는 것)* **자주 쓰는 형태: hold off (on) + 동명사 (예: Let's hold off on booking the tickets. = 티켓 예매는 좀 미루자.)*
skewed	**Quote [2:51]**	*My opinion on London is a bit kind of **skewed** because I've never actually been a proper Londoner.* *런던에 대한 제 의견이 다소 편향되었을 것 같네요. 진짜 런던 사람이었던 적은 없으니까요.*
	Definition	*distorted, biased, or not giving an accurate picture — usually because it's based on limited or unrepresentative experience.* *편향된, 왜곡된, 한쪽으로 치우친 (제한된 경험이나 자료에 근거해 정확하지 않은 상태)* **통계·데이터 문맥에서 특히 자주 써요 (예: skewed data 편향된 데이터, skewed results 왜곡된 결과).* **동사로도 써요: This skews the results. = 이것이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rose-tinted spectacles	**Quote [5:46]**	*You're maybe looking at it through **rose-tinted spectacles**, like— 어쩌면 선생님은 장밋빛 안경을 쓰고 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Definition	*(idiom, British) an overly positive, idealised view of something that ignores its faults — as if wearing pink-tinted glasses that make everything look lovelier than it really is.* *(관용구) 장밋빛 안경* **분홍빛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단점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좋게만 보는 시각을 표현해요.* **미국식은 "rose-coloured glasses"를 더 자주 써요 (spectacles는 영국식 '안경').*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Quote [6:44]**	*You know we **can't have our cake and eat it too**, right? We can't have both mountains and a capital city.*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요. 산과 수도를 둘 다 누릴 수는 없으니까요.*
	Definition	*(idiom) you can't enjoy two desirable but mutually exclusive things at the same time — if you eat the cake, you no longer have it.* *(관용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직역하면 '케이크를 먹어 버리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take something for granted	**Quote [7:19]**	*I think I **took it for granted** because I spent so much time there.* *런던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거든요.*
	Definition	*to fail to appreciate something because you're so used to having it; to assume something will always be there.* *~을 당연하게 여기다, 소중함을 모르다, 고마운 줄 모르다*
steeped in history	**Quote [8:13]**	*Yeah, you could say it's **steeped in history**.* *유서 깊다 할 수 있어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Definition	*deeply filled with or surrounded by history; having a long and rich historical character.* *역사가 깊이 배어 있는, 유서 깊은, 역사로 가득한* **'steep'은 "(찻잎·허브 등을) 우려내다, 담그다"라는 뜻으로 "steeped in + 추상명사" 패턴으로 많이 쓰여요 (예: steeped in tradition 전통이 깊이 밴, steeped in culture 문화가 짙게 배어 있는, steeped in controversy 논란투성이인).*
value for money	**Quote [8:39]**	*You can get those older buildings and that same sense [with] a lot more* ***value for money*** *because, as you say, London's overpriced.* *그런 오래된 건물과 똑같은 분위기를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선생님 말처럼 런던은 너무 비싸니까요.*
	Definition	*(British) the quality or benefit you receive relative to what you paid; good value.* *가격 대비 가치, 가성비 (지불한 돈에 비해 얻는 만족·품질)* **자주 쓰는 형태: good/great/excellent value for money (가성비가 좋은), poor value for money (가성비가 나쁜)*
grease someone's palm	**Quote [9:38]**	*I was going to say maybe some* ***palms were greased****.* *저도 혹시 뒷돈이 오갔을 수도 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Definition	*(idiom) to bribe someone — to give money secretly in exchange for a favour or special treatment.* *(관용구) 뇌물을 주다, 뒷돈을 찔러주다, 매수하다* **표준형은 능동태 "grease someone's palm"이에요. 손바닥에 기름을 발라 미끄럽게 만들어 뭔가 슬쩍 쥐여준다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 bribe (직설적), an under-the-table deal (뒷거래)*
flock to (a place)	**Quote [10:00]**	*They're having children, they've all* ***flocked to*** *the suburbs.*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다들 교외로 옮겨가더라고요.*
	Definition	*(of a large number of people) to go somewhere together in great numbers, usually at the same time and for the same reason.* *(사람들이) ~로 떼지어 몰려가다, 우르르 이동하다, 몰려들다* **'flock'은 "새·양의 무리"라는 명사*
flippant	**Quote [15:18]**	*Obviously, I'm being a bit, you know,* ***flippant*** *on purpose, being a bit dramatic.* *물론 제가 일부러 가볍게 과장해서 말하는 거긴 한데요.*
	Definition	*not showing the seriousness a subject deserves; treating something important in a light, joking, or dismissive way.* *(진지해야 할 일을) 가볍게 말하는, 경박한, 건성으로 넘기는, 장난스러운* **보통은 부정적인 평가에 쓰이지만, "I'm being flippant"라고 스스로 말하면 "지금 일부러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라고 양해를 구하는 표현이 돼요.*
know something like the back of one's hand	**Quote [15:46]**	*Yeah, like they know it* ***like the back of their hand****.* *환히 꿰뚫고 있어요.*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1:1 영어 수업 ▶ lessons.britcent.uk
전문 에디터에게 받는 영어 자소서/에세이 라이팅 첨삭 ▶ editing.britcent.uk
매일 스피킹 & 라이팅 습관을 다지는 영어 챌린지 ▶ community.britcent.uk

	Definition	*(idiom) to know a place, subject, or system extremely well — so thoroughly and instinctively that you don't need to think about it.* *(관용구) ~을 훤히 꿰고 있다,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다, 속속들이 알다* **자기 손등은 평생 봐 와서 아주 익숙하다는 데서 온 비유 표현이에요. 거의 항상 동사 know와 함께 씁니다. 한국어 "손바닥 보듯 훤하다"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 know something inside out, know every inch of something*
whippersnapper	**Quote [18:23]**	*Oh, trust me, you're a young* ***whippersnapper*** *compared to me.* *에이, 저에 비하면 선생님은 그냥 풋내기죠.*
	Definition	*(old-fashioned, humorous) a young and inexperienced person, especially one who seems overconfident. Almost always used playfully by an older person about a younger one.* *(구식·유머) 풋내기, 애송이, 건방진 젊은이* **17세기부터 쓰인 아주 오래된 단어라 요즘은 농담처럼 써요. "young whippersnapper"처럼 young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